

두개의 시선, 하나의 이야기 ‘프랑켄슈타인’

죽지 않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 박사 ‘빅터 프랑켄슈타인’. 공동묘지를 뒤져 모아온 재료들을 자르고 꿰매며 다시 생명을 부여하려는 그의 집착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날 한 시신이 눈을 뜨지만 탄생한 존재는 힘만 세고 어딘가 어눌한 ‘몬스터’였다.

박사는 그것을 문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실험에 몰두해 기어코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어낸다. 드디어 박사의 성과를 대중에게 발표하는 날, 돌연 몬스터가 나타나 박사에게 죽은 소녀를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다. 생명을 창조한 자, 그리고 창조된 자. 박사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며 또다른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게 된다.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극단이 공동 제작한 년번별 신체극 ‘프랑크 앤 슈타인’이 오는 4~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유통’ 선정작으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웃음과 풍자를 통해 동시대의 갈등과 관계를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년번별 신체극은 대사 없이 무용·마임·아크로바틱 등 배우의 움직임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장르다. 언어의 제한을 넘어 관객의 감각을 직접 자극하며 ‘신체’ 자체가 서사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광주예술의전당·국립극단 공동
년번별 신체극…4~7일 무대
예술인 대상 ‘움직임 워크숍’도

연출은 마임 배우이자 공연 연출가인 남궁호가 맡았다. 한국인 최초로 프랑크 마르셀 마르소 국제 마임 학교를 졸업한 그는 마임·거리극·신체극을 넘나들며 ‘신체 언어로 사회적 질문을 건네는 작업’을 이어온 연출가다.

이번 작품은 원작 서사를 단순히 재현하지 않는다. 박사의 실험실, 몬스터의 탄생, 연구 발표회 등 주요 장면을 코믹하게 변주하며 박사와 몬스터의 관계를 동시대의 다양한 갈등 구조로 확장했다.

무대 연출도 독특하다. 무대 한 가운데 놓인 높은 벽을 기준으로 박사와 몬스터의 시점이 동시에 진행되며, 배우들은 양쪽 무대를 오가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관객은 1막 관람 후 반대편 객석으로 이동해 다른 시점에서 2막을 이어서 보게 된다.

출연진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8명으로 구성됐다. 정현우(박사), 양정인(박사엄마), 이은지(엘리자베스), 아마르(몬스터)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았으며, 고찬유·김유진·이재운·이효성 등 광주

출신 배우들도 참여한다.

공연과 더불어 작품을 깊이 있게 즐기고자 하는 관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먼저 오는 6일 오후 2시 공연 종료 후에는 연출가 남궁호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남 연출은 창작 배경과 장면 구성 방식, 신체 중심 연출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관객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대연습실에서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움직임 워크숍’도 진행된다. 남 연출이 강사로 나서 작품의 핵심 표현 방식인 신체마임(Physical Mime)을 중심으로 신체 균형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훈련을 안내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 언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호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 박사와 몬스터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은 구조를 띠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상징한다”며 “원작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동시대성을 반영해 보다 희망적인 결말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광주시의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주간’ 공식 기념공연으로도 선정됐다.

전석 3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FRANK EN STEIN



광주예술의전당·국립극단이 공동제작한 년번별 신체극 ‘프랑크 앤 슈타인’이 오는 4~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출연진이 공연 연습을 하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타이 살라 영원’…광주비엔날레, 첫 해외 비엔날레 참여

타일랜드 비엔날레 파빌리온
내년 1월까지 광주 작가 3명 등

(재)광주비엔날레(대표 이사 윤범모)가 첫 해외 비엔날레에 참여한다.

푸켓에서 열리는 제4회 타일랜드 비엔날레(지난달 28일~내년 1월 31일)에 파빌리온으로 참여하는 전시 주제는 ‘광주-타이 살라 영원’.

태국 기획사 판닛 찬로차나킷과 협력한 이번 전시는 광주 활동 작가 3인 등 국내 작가 4인, 태국 작가 4인이 참여한다.

‘광주-타이 살라 영원’은 올해 제4회를 맞는 타일랜드 비엔날레 주제 ‘영원’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현됐다. ‘영원’을 아득히 먼 곳에 멈춰진 시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 세계가 공존하며 지속하는 관계의 형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지역의 기억과 재료, 기술로 표현된 전시가 다시 순환, 회복을 매개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그동안 8명 작가는 일상성, 돌봄, 저항, 역사 등에 관심을 열어두고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에는 설치를 비롯해 사진, 회화, 영상 등 모두 8점의 작품 중 7점이 새롭게 창작됐다.

하루.K는 한국 전통 회화의 전통과 음식, 과자



현지에 전시된 이세현 작가 작품.

<광주비엔날레 제공>

를 모티브로 개성적인 이야기를 도출한다. 영토, 안보 등을 전착해 온 이세현은 사진을 매개로 도시와 장소가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탐색한다. 김자이는 지역 식물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과정을 통해 환경과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본다.

태국 작가 타왓차이 푼투사왓다는 신체의 의미를 장소로 펼쳐내며, 와나 원라양쿤은 가족의 이

야기로 경계의 의미를 짚어낸다.

한편 윤 대표이사는 “이번 타일랜드 비엔날레 참여는 광주비엔날레의 첫 해외 비엔날레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더 많은 해외 진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여성합창단 지난 공연 모습.

<광주시 서구 제공>

겨울 밤 울려퍼지는 ‘희망의 노래’

광주서구여성합창단 ‘Song of Hope’…4일 서빛마루문예회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밤, 노래는 때때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삶과 희망을 담은 합창 무대가 찾아온다.

광주 서구여성합창단이 오는 4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회 정기연주회 ‘Song of Hop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희망’과 ‘위로’를 주제로 구성됐다.

무대에서는 ‘엄마 좀 그만 불러’, ‘희상’, ‘별’, ‘호랑수월가’, ‘가시리’ 등 익숙한 곡들이 여성합창 특유의 풍부한 음색으로 재해석돼 선보인다. 서정적 선율부터 현대적 감각의 편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가 마련돼 다양한 감성을 전달 예정이다.

특별공연도 마련됐다. 현악 3중주 드림앙상블, 배우 문지혜, 한국무용가 최유정이 협연자로 참여

해 합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완성한다.

서구여성합창단 단원들은 “한 해 동안 준비해온 무대를 주민들과 나누고자 정성을 다했다”며 “공연 제목처럼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순 서구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합창단의 꾸준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창단한 서구여성합창단은 지역 행사와 전국 합창대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9월 열린 제3회 울산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크리스마스 따뜻한 기운을 전합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 수채화반
3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해지고 들뜨기 마련이다. 그러나 차분히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하게 된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다림과 허전함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별관에서 오는 30일까지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선물’전이 그것.

조선대 평생교육원 수채화반(지도교수 김해성) 16명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수채화 소품전을 열고 있다.

회원들은 10년 이상 그림을 그린 분부터 1년도 안 된 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림에도 이들은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의기투합해 작품을 출품했다.

문정수의 ‘아기예수와 친구들’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양떼들이 주위를 에워싼 모습을 표현했다. 더없이 평안한



최진숙 작 ‘성탄 예배’

아기예수의 얼굴과 순한 양들의 눈망울이 크리스마스 의미와 조화를 이룬다.

최진숙의 ‘성탄 예배’는 소복이 눈이 내리는 마을 언덕의 작은 교회를 묘사한 작품이다. 메마른



문정수 작 ‘아기예수와 친구들’

가지에 쌓인 눈, 새하얀 눈길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번져 나오는 교회의 창문은 아늑함과 평안함을 선사한다.

한편 김해성 지도교수는 “이번 전시가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꿈꾸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해의 끝자락에서 크리스마스가 환기하는 감사와 희망, 나눔 등을 사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 작사·작곡 ‘12월 이야기’ 무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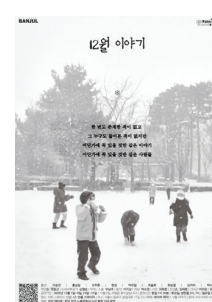
극단 제비꽃, 서울 반줄 스테이지…2005년 초연 이후 20년만

소설가 한강이 만든 노래 ‘12월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동명 연극이 20년 만에 재공연 된다.

극단 제비꽃은 1~8일과 23~31일 서울 종로구 반줄 스테이지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연극 ‘12월 이야기’를 상연한다고 밝혔다.

2005년 초연 이후 20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12월 이야기’는 어느 겨울밤 카페 ‘12월 이야기’에 우연히 모인 여덟 명의 인물이 각자의 상처와 비밀, 오래된 사랑과 두려움,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승연, 홍승일, 오주환, 현성, 박유림, 최솔희, 최승열, 심마리, 박시영 등 연극·영화·드라마 현장에서 활약한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최창근 연출가는 “한강의 노래 속 가사는 연극 속 인물들이 품고 있는 결핍, 상처, 겨울의 고요한 감정을 관통한다”며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노래가 미완성이던 희곡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